



가인, 그 후 이야기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부가 한곳에 머무르지 못하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떠돌이 신세가 된 가인을 사람들이 위협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끔찍한 죄로 시작되었던 가인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지요.



맞혀 봐요, 초성 퀴즈!

오늘 말씀 속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서 퀴즈를 맞혀 볼까요?

- ① 가인의 부모님은 **오**과 **하**예요.
- ② 아벨의 형은 **가**이에요.
- ③ 가인의 직업은 **농**예요.
- ④ 가인은 **두** **아** **아** **아**로 제사를 드렸어요. (창 4 : 3)
- ⑤ 아벨은 **오**의 첫 새끼와 그 **가**로 제사를 드렸어요. (창 4 : 4)
- ⑥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 4 : 7)
- ⑦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가** 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창 4 : 15)

말씀 속 이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요!



우리의 결단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해야 해요. 또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아래의 보기에서 선택한 후, 결단문에 적어 봐요.

〈보기〉

-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기
- 부모님 안마해 드리기
-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응원 문자 보내기
- 가족에게 작은 선물 주기
- 집안일 술선수범하기
- 방 청소하기
-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하기
-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

“결단문”

